

“尹 대통령 전원 일치 파면 선고는 국민의 명령”

SOCIETY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시민단체 등 기자회견 “헌재, 국민 신뢰 개선 안돼” 민주주의·헌법 위협... 지방 기초의회도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3일 윤석열총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8:0 전원일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비상행동은 “5000만 국민이 한마음으로 연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말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것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세기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쫓아왔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권위 쿠데타에 의한 불법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며 “비현실적인 사태 앞에서 국민은 위대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과 국가기관은 비겁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사회 혼란을 수습할 마지막 양심을 지킬 것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87년 국민이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 낸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유효한 수단인지 국민들

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국민적 염원을 무너뜨린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은 헌재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가 자가 될 것이다”며 “그것만이 헌법 수호의 길을 내뻗게 된 공권력의 배신 때문에 갈라지고 찢긴 대한민국을 통합할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지역 유림단체도 헌재에 전원일치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냈다.

광주향교 5단체 유림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시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내란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내란수괴로서 죄를 짓고도 여전히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인용 결과만이 이끌어낸 탄핵정국에서 지쳐있는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마치 감옥과도 같은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쳐가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결정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주향교 유림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해 정의로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전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기초의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연한 파면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명확하다”며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불만과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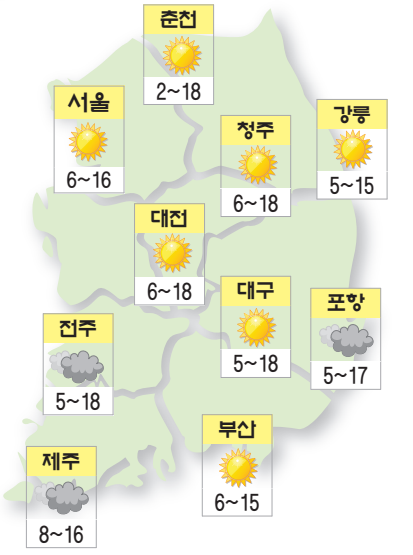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 111일만에, 변론종결 35일만에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정권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재 전원 일치 파면 선고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오늘의 날씨

예보 06:15 | 달맞이 10:19
예보 18:56 | 달맞이 00:55



| | |
|-----|------|
| 광주 | 5~18 |
| 목포 | 4~14 |
| 여수 | 6~13 |
| 순천 | 4~16 |
| 구례 | 3~18 |
| 광주 | 2~15 |
| 임도 | 4~15 |
| 흑산도 | 5~13 |
| 고흥 | 2~15 |
| 진도 | 3~13 |

| | | |
|----|-------|---------------|
| 목포 | 밀물(고) | 05:36 / 18:26 |
| | 썰물(저) | 11:35 / 23:35 |
| 여수 | 밀물(고) | 01:03 / 12:51 |
| | 썰물(저) | 07:03 / 19:10 |

육설·심부름... 김형수 복구의원 갑질 논란

공개 사과·출석정지 30일 권고...23~30일 징계 양정 결정

직원에 대한 육설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김형수 광주 복구의원이 세탁 심부름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청 내부에서는 '구태적인 일'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3일 복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김형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갑질 피해 신고자는 입에 담지 못할 육설뿐만 아니라 사적 업무 지시도 이뤄졌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도 김 의원이 이미 끝난 일로 처부하며 '내에게 육한 게 아니다'란 변명만 늘어놓는 입장이다.

또 인격 모독은 물론 세탁, 금융업무 같은 개인 심부름, 사적모임이나 병원 수행까지 지시했다고 의견이다. 하지만 사적 업무지시에 대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신고자 외에 다른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갑질 피해 조사반은 이를 묵살, 신고자의 육설만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수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직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갑질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변명으로 사실을 일축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징계 수위를 낮춘 적이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전날 윤리심사자문위가 열리는 회의실을 찾아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장은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용 복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들과 공정성을 가지고 징계 양정을 결정해 23~30일 열릴 회기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GGM 노조 “노사민정 중재안 거부·한달 협상 요구”

35만대 달성까지 파업 유보 등 비난... 중재특위 기간 연장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사측에 한 달 협상기간을 갖자고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3일 민주노동 광주본부에서 “파업할 권리를 봉쇄하는 중재안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중재안의 핵심문제가 35만대 달성까지 파업을 유보해달라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2027년까지 노동3권을 제약하며 파업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인

데. 노사 간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GM 사측에는 최소의 의무를 지우고, 노동조합에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협상력의 근간인 파업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은 식물노조로서 교섭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파업 유보가 파업과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이 목적이면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 대표의 권한 침해 행위를 멈추고, 한 달 간 평화 기간을 갖자”면서 “집중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요구했다.

노조는 “중재안이 권고한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 상설기구가 아직 없다”며 “노사갈등 조정과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중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측이 성실 교섭에 나선다면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갈 이유가 없다”면서 “사측도 헌법적 가치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일터로서 노사가 공존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묻지마 살해’ 박대성 항소심도 사형 구형

새벽 시간대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2시43분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

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5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마약 밀반입 불법체류자 벌미

다른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세관 당국에 붙잡혀

3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24·여)를 구속.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아바 1만17정, 필로폰 310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아, 수사 결과 A씨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과자 봉투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본부세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A씨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밀수입하고 투약한 사실도 밝혀내, 송대용 기자 scdw0918@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녹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